논리, 놀리?

0장. 머리말 – “0장은 또 어디서 배움?”

“0장은 또 어디서 배움?”

말 되는 소리다. 아니, 말 안 되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이해는 된다.

사실 이 책은 논리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논리가 안 맞는 말로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논리다.

세상엔 말이 안 되는 말 중에도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 있다.

어떤 말은 문법상으론 맞는데, 하나도 안 와닿고 어떤 말은 틀린 줄 알면서도 마음에 박힌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첫 장을 숫자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논리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어 시간에 배우던 논리, 수학 시간에 증명하던 논리, 친구랑 싸울 때 쓰던 논리, 부모님 앞에서 망설이던 논리, 연인과 헤어질 때조차 꺼내고 싶었던 논리...

그 모든 게 다 논리였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두 개밖에 안 가르쳐줬다.

말로 이기는 법, 수식으로 틀리지 않는 법.

이 책은 그 틈을 메우는 책이다.

말로 못 이기고, 논리로 자꾸 상처받고, 남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그때 꺼내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0장은, 논리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이다.

논리, 놀리?

아니. 이제는 논리, 알기.

고!

1부. 논리를 알아야 논리랑 놀지

�� 1장. 말로 말하는 논리

– 국어 시간 말고, 인생에서 만난 논리

말이 잘 통하면 논리가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말은 잘 통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그냥 돌아섰는데 며칠 뒤 그 사람 말이 맞았던 걸 깨달은 적도 있다.

도대체 ‘논리’란 뭘까?

‘맞는 말’이란 뭘까?

국어 시간에는 분명 배웠다.

접속어, 주제문, 주장과 근거, 반론과 반박... 근데 왜 말은 자꾸 꼬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배우는 국어 논리는 시험을 위한 논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1.1 논술형 논리와 인생형 논리

논술은 주장과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주장은 단문, 근거는 예시와 구체성, 반박은 논리적으로.

하지만 인생은?

A: 그때 왜 그랬어?

B: 아,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이건 논술적으로는 실격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완전 납득되는 말이다.

→ 이게 국어 논리와 삶의 논리가 어긋나는 첫 지점이다.

1.2 말이 이어지면 논리일까?

논리는 문장의 연결 구조를 요구한다. 그래서 접속어가 중요하다.

|  |  |
| --- | --- |
| 접속어 | 기능 |
| 그런데 | 방향 전환 |
| 또한 | 병렬 연결 |
| 왜냐하면 | 이유 제시 |
| 따라서 | 결과 도출 |

→ 그런데 이것만 잘 써도 ‘논리적으로 보인다’

→ 하지만 진짜로 납득되지는 않는다는 함정이 있다.

1.3 납득은 ‘구조’보다 ‘맥락’에서 온다

문장은 맞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경우: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

→ 맥락이 없기 때문.

→ 앞뒤 흐름 없이 나온 결론은, 그냥 말장난일 뿐.

1.4 말의 논리는 ‘이음’의 기술이다

말의 논리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이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특히 말투, 리듬, 억양은 형식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 설득에서는 가장 큰 논리의 축이 된다.

�� 요약

국어 논리는 글쓰기의 논리다. 말하기의 논리와는 다르다.

말하기에는 문맥, 억양, 감정, 맥락, 관계의 기억까지 얽혀 있다.

그래서 말은 말로만 설명할 수 없다.

1.5 말의 논리를 듣는 귀

“그 말,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왠지 기분이 나쁘다. 또는

“그 말, 말은 좀 이상한데…”

근데 왜인지 납득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응적으로 듣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를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두 가지 귀가 있다

|  |  |
| --- | --- |
| 귀의 종류 | 특징 |
| 형식 논리의 귀 | 말의 구조, 단어 선택, 오류 여부에 집중 |
| 감응 논리의 귀 | 말의 의도, 정서, 상황 맥락에 집중 |

→ 국어 논리는 전자를 강조한다.

→ 하지만 실제로 설득되고, 이해되고, 감동받는 건 후자에서 일어난다.

�� 예시

A: “야, 솔직히 말할게. 너 그때 좀 너무했어.”

구조상으론 감정 섞인 비논리 문장. 하지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B: “...응. 알아. 나도 그 생각 들었어.”

→ 이건 논리가 통한 거다.

이유? 말의 구조가 아니라 ‘진심의 리듬’이 통했기 때문이다.

�� 결론: 말의 논리는 ‘진심의 맥락’을 타고 흐른다.

논리를 말할 때보다 논리를 들어주는 방식이 훨씬 더 관계를 결정한다. 말의 논리는 듣는 사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 그래서 국어 논리는…

구조를 배워야 하지만 그 구조가 진짜 설득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의 논리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만들어진다.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가자:

논리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제대로 보인다.

1.6 논리적인 대화는 훈련될 수 있을까?

“좀 논리적으로 말해 봐.”

이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습관이자 기술이기 때문이다.

�� 기본 훈련법 3가지

|  |  |
| --- | --- |
| 훈련법 | 설명 |
| 1. 주어-서술어 확실히 말하기 |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 뭐가? 누가? 왜? |
| 2. 접속어 의식하기 | 생각 흐름을 나도 모르고 튀는 경우 줄이기 |
| 3. ‘결론 먼저 말하기’ 연습 | 듣는 사람 입장에서 논리 구조를 보여주기 |

이건 글쓰기에도 말하기에도 적용된다. 국어 논리는 훈련이 된다.

1.7 논리적 말하기는 무조건 좋은가?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면 차가워진다.

“근거를 말해봐.”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그 말은 이 말이랑 모순되지 않아?”

이런 말들이 논리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잃게 만들기도 한다.

�� 사람을 기계처럼 대하면, 대화는 멈춘다

논리만 남은 말에는 온도가 없다.

말은 말의 논리뿐 아니라, 관계의 논리도 따라야 한다.

정답보다 공감, 논리보다 맥락이 중요할 때도 많다.

1.8 국어 논리의 오용 사례

|  |  |
| --- | --- |
| 잘못된 논리 사용 | 문제점 |
|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넌 틀렸어” | 주관을 일반화 |
|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사실은 감정 배틀) | 형식 뒤에 감정 숨기기 |
| “결국 다 네 잘못이잖아” | 결과만 보고 과정 무시 |

→ 이건 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말이 되어버린다.

1.9 국어 논리, 다시 정의하기

국어 논리는 말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나 정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도구가 사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

✅ 1장 요약 정리

|  |  |
| --- | --- |
| 핵심 포인트 | 요약 문장 |
| 논리 ≠ 말 잘하는 것 | 말의 구조는 설득을 돕지만, 진심을 대신하지 않는다 |
| 말의 논리는 훈련된다 | 접속어, 구조, 결론 중심으로 연습 가능 |
| 논리는 관계를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다 | 온도 없는 논리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
| 국어 논리는 하나의 렌즈일 뿐이다 |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한다 |

�� 마무리 문장

국어 논리는 말을 정리해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은 아니다.

그래서, 말의 논리를 배울수록 말 너머의 것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 2장. 참과 거짓만 남는 세계

– 수학/기호 논리: 맞거나 틀리거나, 그것뿐?

이 세계에는 흑과 백밖에 없다. 애매함은 없다. “맞아, 그런데…” 같은 말도 없다.

이 세계의 이름은 수학 논리, 또는 기호 논리다. 논리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냉정하고, 아름답고, 무섭다.

권력은 이런 논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판단이 명확하니까. 예외 없이 적용되고, 변명도 통하지 않고, 감정도 개입되지 않는다.

맞거나, 틀렸거나. 둘 중 하나.

2.1 명제, 진리값, 그리고 증명

“모든 A는 B이다.”

“이 명제가 참이면, 그 반례는 없다.”

수학 논리는 명제 중심 구조다.

하나의 문장을 던지고, 그것이 참(True)인지 거짓(False)인지 판단한다.

�� 기본 개념 정리

|  |  |
| --- | --- |
| 개념 | 설명 |
| 명제 | 참 or 거짓이 확실히 정해지는 문장 |
| 진리값 |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
| 논리적 추론 | 몇 개의 명제로부터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과정 |
| 증명 | 참임을 구조적으로 보이는 절차 |
| 반례 | 거짓임을 보여주는 한 개의 예시 |

2.2 조건문과 역, 이, 대우

예를 들어 이런 말:

“A면 B이다.”

→ 조건문 A → B

역: B → A

이: 아니 A → 아니 B

대우: 아니 B → 아니 A

→ 수학 논리는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참/거짓 여부를 따지는 데 1도 감정이 없다.

2.3 수학 논리의 강점

절대적인 명확함, 반박 불가능한 증명, 논리적 훈련에 탁월.

프로그래밍, AI, 기계 학습의 기본 언어

2.4 수학 논리의 맹점

현실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는 다 잘려나감

→ “그 말은 맞아, 그런데…”가 실종

수학 논리는 옳음에는 강하지만, 삶에는 약하다.

어떤 삶은 애매한 채로 오래 존재해야 하고 어떤 말은 모순된 것처럼 보여도 울림이 있다.

2.5 권력과 수학 논리

“이건 규칙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네 말은 말이 안 돼.”

→ 이건 설득이 아니다.

→ 선 긋기이고, 침묵시키기이고, 지배 구조다.

�� 정리

|  |  |
| --- | --- |
| 장점 | 단점 |
| 명확하고 오류가 없다 | 사람과 현실의 복잡성을 버림 |
| 자동화와 기술 발전의 기반 | 인간성, 감정, 예외, 이해는 다룰 수 없음 |
| 권력은 이 논리를 좋아함 | 왜? 통제와 배제가 쉬워지니까 |

�� 2장 마무리 문장

참과 거짓만 있는 세계는 논리적이지만, 살기엔 너무 춥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논리도 만들지만, 말로 논리를 넘어야 한다.

�� 3장. 모순을 받아들이는 법

– 철학적 논리: 질문, 역설, 그리고 끝없는 “왜?”

“그건 모순이잖아.”

수학 논리에선 이 말이 치명적인 오류 선언이다. 하지만 철학 논리에선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해.’라는 신호다.

철학의 세계에선 모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3.1 논리와 질문은 반대 방향에서 온다

논리는 정리하려 하고 질문은 흔들려고 한다

논리: 이건 이래서 이렇다

질문: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데?

→ 이 긴장이 철학 논리의 핵심이다.

3.2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 질문의 논리

질문으로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며 진짜 중심을 끌어냄. 주장 대신 질문으로 상대를 몰아붙임

답이 없는 질문 → 생각의 운동 시작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이 정의롭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 대답할수록 혼란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진다.

3.3 역설과 긴장, 그리고 논리의 경계

이중구속(Double Bind): “자유롭게 해. 그런데 틀리면 책임은 네가 져.”

역설(Paradox): “이 문장은 거짓이다.”

철학 논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고를 밀어붙인다.

→ “논리가 깨지면 오류가 아니라, 사유의 기회다.”

3.4 철학적 논리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철학은 논리를 빌려 쓰되, 논리 바깥까지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진짜 삶은 논리보다 더 복잡하니까.

논리는 정답을 추구하고, 철학은 의문을 붙잡는다.

�� 정리

|  |  |
| --- | --- |
| 철학 논리 | 수학 논리 |
| 질문을 계속 만든다 | 명제를 닫아간다 |
| 모순을 인정하고 머문다 | 모순은 제거해야 할 오류다 |
| 사고를 운동시키는 힘 | 사고를 멈추게 하는 완결성 |
| 의미, 존재, 삶을 묻는다 | 조건, 결과, 구조를 계산한다 |

�� 3장 마무리 문장

철학은 말이 아니라 생각을 흔든다.

그리고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 논리가 아닌 내가 나온다.

�� 4장. 알고도 왜 그랬냐고요?

– 심리적 논리: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물론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다.

왜?

왜 우리는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맞는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릴까?

4.1 사람은 계산기가 아니다

인간은 단순한 “입력→출력” 구조가 아니다. 과거 경험, 감정, 욕구, 기대, 불안이 모두 반영된다.

“이게 맞는 건 아는데… 싫어.”

→ 이 한마디에 논리는 무너진다

4.2 심리적 논리 vs 형식 논리

|  |  |
| --- | --- |
| 형식 논리 | 심리적 논리 |
| 참/거짓 판단 | 납득/거부 감정 |
| 전제 → 결론 | 감정 → 반응 |
| 논리적 오류는 배제 | 감정적 오류는 현실 |
| 예: “그건 모순이야” | 예: “근데 그게 진심이었잖아” |

4.3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심리적 오류들

�� 확증편향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만 찾게 됨”

�� 프레이밍 효과

→ 말의 포장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반응이 달라짐

→ “10% 실패율” vs “90% 성공률”

�� 인지 부조화

→ 내가 믿는 것과 실제가 충돌할 때

→ “그럴 리 없어”라며 현실을 왜곡

4.4 논리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봐.”

때론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 충동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

4.5 그래서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말도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말이 논리적으로 부족해도 정서적 울림이 있으면 사람은 그 말에 따라간다.

✅ 정리

|  |  |
| --- | --- |
| 핵심 포인트 | 요약 |
| 인간은 심리적 존재다 |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다 |
| 논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무시했기 때문 |
| 심리적 논리를 이해해야 관계가 풀린다 |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

4.6 심리 논리의 오류 감별법

심리 논리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진짜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 표면 심리 vs 작동 심리

|  |  |
| --- | --- |
| 표면 말 | 실제 작동 논리 |
| “그냥 기분 나빠서” | 정서적 경계 작동 (과거 유사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 |
| “난 그런 스타일 싫어” | 통제 가능성 낮은 대상에 대한 회피 |
| “왠지 불안해” |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반응 |

→ 이건 논리 구조가 없는 게 아니라,

→ 감정 조건을 전제로 한 “감정 기반 if문”이 작동 중인 거야.

�� 감별법 핵심

“이 반응이 일관되게 반복되는가?”

→ 그렇다면 논리다. (감정 기반 논리)

“이 반응이 그때그때 다른가?”

→ 그건 순수 감정 반사. (논리 이전 상태)

4.7 심리 논리 vs 설득 기술

심리 논리는 자연발생적이고 설득 기술은 조작 가능하다.

예: 심리 논리는 이렇게 작동한다

“그 말이 맞긴 한데 너무 차갑게 들려”

→ 감정이 방어적으로 논리를 거부함

예: 설득 기술은 이렇게 노린다

“그 말, 따뜻하게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 표현 방식으로 감정 필터를 바꾸면, 논리 수용률이 달라짐

|  |  |  |
| --- | --- | --- |
| 구분 | 심리 논리 | 설득 기술 |
| 작동 방식 | 감정 → 반응 | 감정 → 의도적 조절 |
| 주체 | 무의식 | 타인의 의도 |
| 속성 | 본능적, 반복적 | 전략적, 조절 가능 |
| 위험 | 정당화의 함정 | 조작의 가능성 |

✅ 심리 논리의 마지막 정리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감정이 먼저 논리를 필터링한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보다

‘왜 그 말이 그렇게 들렸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 4장 최종 마무리 문장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납득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논리의 가장 깊은 층엔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가 숨어 있다.

�� 5장.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데?

– 과학적 논리: 귀납, 연역, 그리고 반증의 기술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실험했지.”

과학의 논리는 직관도, 감정도, 권위도 아닌 관찰과 검증에서 출발한다.

5.1 귀납: 작은 사례에서 일반 법칙으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다 → 그러니 아마 모든 X는 Y일 것이다.

�� 예시

사과를 떨어뜨렸더니 땅으로 떨어진다. 바나나도, 연필도 마찬가지다.

→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

→ 이것이 귀납적 추론: 반복되는 경험 → 일반화

✅ 장점

현실 기반.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데 적합

⚠ 단점

100개가 그랬다고, 101번째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다. 귀납은 항상 잠정적이다.

5.2 연역: 법칙에서 구체적 결론으로

모든 X는 Y다. A는 X다 → 그러므로 A는 Y다.

�� 예시

모든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한다.

구리는 금속이다.

→ 그러므로 구리는 열을 잘 전달한다.

→ 이건 연역적 추론: 규칙 → 구체적 적용

✅ 장점

엄밀하고 강력한 논증 구조.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 단점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무너진다.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5.3 반증주의: 참을 찾기보다, 거짓을 제거하라

칼 포퍼가 제시한 과학 논리의 전환점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귀납이다.

→ 하지만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그 명제를 무너뜨린다.

→ 그래서 과학은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검증을 추구한다.

5.4 과학 논리의 힘과 한계

|  |  |
| --- | --- |
| 장점 | 한계 |
| 검증 가능성 | 애매한 개념은 배제됨 |
| 재현성 | 복잡한 인간 문제는 단순화됨 |
| 반증 가능성 | 예외와 개별성은 무시되기 쉬움 |

�� 과학적 논리 vs 다른 논리

|  |  |  |
| --- | --- | --- |
| 비교 대상 | 과학적 논리 | 차이점 요약 |
| 국어 논리 | 구조를 따짐 | 과학은 검증을 따짐 |
| 수학 논리 | 형식이 핵심 | 과학은 실험과 결과가 핵심 |
| 심리 논리 | 감정 기반 반응 | 과학은 감정을 통제하려 함 |
| 철학 논리 | 질문과 의심 | 과학은 잠정적 확신과 반증 추구 |

�� 5장 마무리 문장

과학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틀렸다고 드러나지 않은 말만을 믿는다.

그래서 과학의 논리는 말이 아니라 검증에서 완성된다.

�� 6장. 정답이 아니라 흐름이다

– 변증법적 논리: 모순, 긴장, 그리고 합으로 나아가는 힘

어떤 사람은 A가 맞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B가 맞다고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둘 다를 듣고 있다.

변증법적 논리는 묻는다:

“둘 다 틀렸나?”

“아니다. 둘 다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리는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 품고, 흐른다.

6.1 정↔반→합: 변증의 기본 구조

정(Thesis): 기존 입장 또는 주장

반(Antithesis): 그에 반대되는 주장

합(Synthesis): 둘을 통합하거나 넘어선 새로운 시각

�� 예시

정: 전통 교육은 중요하다

반: 창의성과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

합: 구조 안에서 자율을 키우는 융합 교육

→ 이것이 변증법.

싸움이 아니라, 전환을 위한 논리다.

6.2 변증법은 언제 쓰이는가?

사회 갈등, 사상 대립, 관계 충돌처럼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입장이 공존할 때.

단순한 선택이나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사고가 필요할 때

6.3 변증 논리의 오해

“정↔반→합?

그거 그냥 중간에서 대충 타협하는 거 아니야?”

❌ No.

타협은 절충이고, 변증은 진화다.

타협: 둘 다 조금씩 양보함

변증: 둘 다 충분히 생각한 뒤,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

6.4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이 논리는 정답을 제거하지 않고 ‘생성하는 흐름’으로 논리를 본다.

수학 논리: “모순은 에러”

변증 논리: “모순은 에너지”

→ 모순이 클수록, 도약도 커진다

�� 예시: 변증적 사고 흐름

“이 기술은 인간을 해친다”

“이 기술은 인류를 발전시킨다”

→ “기술을 통해 인간성을 더 정교하게 지켜야 한다”

✅ 정리

|  |  |
| --- | --- |
| 구분 | 설명 |
| 핵심 |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 품는다 |
| 목적 | 갈등을 통해 더 높은 통찰로 전환 |
| 방식 | 정 ↔ 반의 긴장 → 합의 창출 |
| 위험 |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혼란으로 빠질 수 있음 |

�� 6장 마무리 문장

변증 논리는 말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말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갈등은 끝이 아니라, 출구다.

�� 7장. 연결은 논리다

– 생태적 논리: 순환, 맥락, 그리고 공존의 사유

나무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는 논리적으로 살아간다.

흙과 빛과 바람과 생태계의 흐름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순환을 만들어간다.

7.1 생태적 논리란?

생태적 논리는 연결된 전체를 보는 사고다.

A → B → C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A → B → C → A

순환과 상호작용으로 본다.

7.2 서열이 아니라 맥락

|  |  |
| --- | --- |
| 전통 논리 | 생태적 논리 |
| A가 맞고 B는 틀림 | A와 B는 다른 자리, 다른 기능 |
| 결과 중심 | 관계 중심 |
| 우열/위계 | 다양성/공존 |
| 고립된 판단 | 연결된 판단 |

→ 생태적 논리는 맞고 틀림 이전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7.3 생태 논리의 예

�� 자연 생태계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이 증가 → 풀밭이 황폐

→ 늑대를 다시 들여놓자, 숲이 회복

→ 논리의 단위가 ‘늑대 vs 사슴’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균형’임을 보여줌

�� 인간 관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 그를 없애야 할까?

→ 아니, 그 관계를 바꿔야 할까?

→ 인간 사이도 생태다.

→ 단절은 쉬우나, 순환은 어렵고 깊다.

7.4 생태 논리의 언어 감각

생태 논리는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리듬, 흐름, 연결감이다.

수학 논리가 ‘A이면 B’라면 생태 논리는 ‘A가 있으니 B도 생긴다, 그리고 B는 A를 다시 바꾼다’

→ 논리적이지만, 시적이다

�� 생태 논리는 '결론 없는 결론'이다

이 논리는 언제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묻는다.

�� 7장 마무리 문장

논리는 살아 있다.

그것은 누군가를 꺾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생각의 생태계다.

�� 에필로그

논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 틀렸다고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말은 싸우고 사람은 멀어진다.

논리는 틀림을 가르쳐주지만 틀렸다고 말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도 살 수는 없다.

논리의 종류를 배웠다고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논리의 차이를 알게 되면 말이 곧 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어 논리로 말하는 사람과 수학 논리로 듣는 사람 사이엔 한참의 공백이 있다.

누군가는 철학처럼,

누군가는 감정처럼,

누군가는 증명처럼,

누군가는 관계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건 내용이 아니라, 방식일 때가 많다.

이 책이 바라는 건 하나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여유가 삶에 들어설 수 있기를.

�� 마지막 문장

논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말'이라는 일상에서 배워가는 중이다.

�� 보너스: 논리 지도

|  |  |  |  |
| --- | --- | --- | --- |
| 논리 종류 | 핵심 방식 | 주로 쓰이는 영역 | 키워드 |
| 국어 논리 | 문맥과 흐름 | 일상 대화, 글쓰기 | 말맛, 맥락, 자연스러움 |
| 수학 논리 | 전제와 형식 | 증명, 프로그래밍 | 조건, 명제, 정합성 |
| 심리 논리 | 감정과 반응 | 광고, 설득, 관계 | 느낌, 동기, 정서적 수용 |
| 과학 논리 | 검증과 반증 | 실험, 보고, 정책 결정 | 귀납, 연역, 실증 |
| 철학 논리 | 질문과 성찰 | 담론, 윤리, 존재 탐구 | 의심, 정의, 전제 비판 |
| 변증 논리 | 긴장과 전환 | 갈등 조정, 사상 발전 | 정반합, 전환, 모순의 힘 |
| 생태 논리 | 순환과 관계 | 공동체, 자연, 시스템 사고 | 연결, 맥락, 공존 |

2부. 논리를 좀 더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 0장. 어디서 배우셨어요? – 머리말 대신, 왜 논리인가

“그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 말,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상대가 정색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잘못된 말을 한 사람처럼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누구 기준일까요?

논리를 배우긴 했던가요?

우리는 늘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배웠지만 논리를 정작 ‘어디서’ 배웠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아니면 엄마가 말 막힐 때 내뱉던 “그건 말이 안 되잖아”라는 한마디?

논리는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말에 밀렸던 경험이 우리를 논리 앞에 서게 했죠.

왜 내 말은 매번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까?

왜 어떤 사람은 말이 짧은데도 설득력이 있을까?

왜 나는 “느낌”이 맞다고 말하면, 틀렸다고 할까?

그래서, 이 책은

논리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논리를 “틀”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로 보여주려 합니다.

국어 논리, 수학 논리, 심리 논리, 과학 논리, 철학 논리, 변증 논리, 생태 논리...

논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이 책은 싸움을 위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말이 안 통해서 멀어진 사람’을 조금 덜 잃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논리, 그거. 놀려도 됩니다.

놀릴 만큼(playing) 자유롭고, 놀릴 만큼(make fun of) 내 것이 되어야 진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 1장. 말로 말하는 논리

– 국어 논리: 흐름, 맥락, 말맛의 구조

“그 말은 좀… 이상해.”

맞춤법도 틀리지 않았고, 문법도 어긋나지 않았는데 왜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까?

이상한 건 논리일까, 말맛일까?

이 장에서는 ‘국어 논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따라가는 리듬, 흐름, 연결 방식을 다룬다.

�� 말에는 결이 있다

국어 논리는 흐름을 따른다. 이 흐름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연결: 앞말과 뒷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맥락: 상황 속에서 말이 뜬금없지 않은가?

톤: 말투나 분위기가 어긋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보자.

“제가 늦었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 비논리’의 전형이다. 변명을 하지 않겠다면서 뒤에 분명히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 논리에서는 이런 모순조차 허용된다.

왜?

말맛과 정서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국어 논리는 ‘정서적 정합성’을 본다

수학 논리는 전제와 결론 사이의 틈을 따진다. 그러나 국어 논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가, 즉 정서적 정합성이 중심이다.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논리적 너그러움, 국어 논리의 핵심이다.

�� 국어 논리는 전달을 위해 존재한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기 쉽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무 돌려서 이해가 안 돼.”

“그 얘기 전에, 그 상황부터 설명해줘야지.”

“말이 자꾸 점프해서 못 따라가겠어.”

이런 말들은 전부 국어 논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말이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이다.

�� 정리: 국어 논리의 3요소

|  |  |  |
| --- | --- | --- |
| 요소 | 설명 | 질문 예시 |
| 연결 | 앞뒤 말의 흐름 | “이 얘기 다음에 왜 저 얘기야?” |
| 맥락 | 상황 속 의미의 자연스러움 | “그 말 지금 왜 꺼낸 거야?” |

정서/톤 말의 분위기, 온도, 뉘앙스 “너 지금 좀 날카롭다?”

�� 국어 논리가 중요한 이유

우리는 대부분의 논리를 ‘말’로 전달한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먼저 통과한다.

국어 논리를 무시한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아도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 2장. 증명은 냉정하다

– 수학 논리: 전제-명제-결론의 구조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런데 왜 말은 싸늘해질까?

수학 논리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나오는 구조. 전제가 맞다면 추론은 정당하고, 결론은 필연적이다.

이게 바로 ‘증명 가능한 세계’의 논리다.

�� 수학 논리의 3요소

전제 (Premise)

→ “만약 A라면…”

명제 (Proposition)

→ “A이면 B다.”

결론 (Conclusion)

→ “그러므로 B다.”

이 논리는 ‘맞으면 끝’이다. 더 이상 감정도, 설명도 필요 없다.

�� 왜 냉정하게 느껴질까?

수학 논리는 다음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상황 설명

맥락의 온도

듣는 사람의 감정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는 걸 보여줄 때 수학 논리는 아주 유용하다.

“너의 전제가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결론도 따라오지 않아.”

이건 정확한 판단이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찬바람이 분다.

�� 수학 논리의 위력

수학 논리는 논쟁에서 강력한 무기다.

디베이트, 법정 논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 문제 해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든 연결고리를 통과한 결론만 남는다. 대신 상대의 마음은 자주 놓친다.

�� 논리적으로 맞아도, 사람에게 틀릴 수 있다

“그 말이 왜 틀렸는지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난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

수학 논리는 정확한 대신 공감 없는 논리로 보일 수 있다.

�� 정리: 수학 논리의 특징

|  |  |
| --- | --- |
| 항목 | 내용 |
| 기준 | 참/거짓 명확하게 구분 |
| 구조 | 전제 – 명제 – 결론 |
| 목적 | 추론의 정당성, 오류 제거 |
| 강점 | 판단 기준으로 강력, 증명 가능 |
| 약점 | 감정, 맥락을 무시 |

�� 3장.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 심리 논리: 감정 기반의 설득과 반응 구조

“그 말,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 그럼 왜 기분이 상할까?

�� 심리 논리란?

심리 논리는 감정의 흐름을 따른다. 정확한 추론보다 어떻게 느껴졌는가가 핵심이다.

말이 아니라 말이 불러일으킨 감정이 논리의 출발점이 된다.

�� 감정은 논리가 된다

“화가 난다”

→ 왜?

→ “그렇게 말하는 건 날 무시하는 거 같아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곧 하나의 해석 구조, 즉 심리적 논리가 된다.

�� 심리 논리는 설명보다 방아쇠를 본다

심리 논리는 이렇게 작동한다:

자극(말/행동)

감정 반응(불쾌감, 공포, 기대, 위로 등)

내면 해석(날 싫어하나? 기대했었나?)

결론(이건 나한테 위험해 /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때 논리적 비약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납득되면 받아들인다.

�� 왜 오해가 반복될까?

심리 논리는 사실보다 해석을 우선시한다.

“그 사람, 그냥 피곤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 눈빛은 분명 무시였어.”

이 대화는 논리 간 충돌이 아니라 논리 종류 간 충돌이다.

�� 설득하려면?

→ 감정을 건드려라

“이건 네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야.”

“지금 이 상황, 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심리 논리에서는 공감이 논리다.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느낌에 다가가는 것이 더 강력하다.

�� 정리: 심리 논리의 특징

|  |  |
| --- | --- |
| 항목 | 내용 |
| 기준 | 감정, 반응, 해석 |
| 구조 | 자극 → 감정 → 해석 → 결론 |
| 목적 | 관계 유지, 자기 보호 |
| 강점 | 공감 유도, 정서 기반 설득 |
| 약점 | 오해 발생 가능, 비약적 결론 |

�� 4장. 실험은 거짓말을 못 해

– 과학 논리: 반복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요즘 말다툼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 질문. 사실상 ‘논쟁 종료 선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과학 논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 과학 논리는 관찰과 반복에서 출발한다

한 번 일어난 건 우연일 수 있다. 여러 번 같은 조건에서 반복되면, 그건 법칙의 실마리가 된다. 이게 바로 과학 논리의 출발점이다.

‘한 번 봤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 해도 똑같다’여야 한다.

�� 핵심 개념 1: 반복 가능성

“누구든, 언제든, 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한다.”

특정 약이 효과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에서 효과 있어야 진짜다.

�� 핵심 개념 2: 반증 가능성

“틀릴 수도 있어야, 참일 수 있다.”

과학 논리는 영원히 맞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음을 입증한다. 그래서 과학 논리는 늘 ‘가장 강력한 가설’을 사용한다. 그리고 언제든 더 나은 가설로 대체될 준비가 되어 있다.

�� 과학 논리는 감정과 신념을 배제한다

“내가 보기엔 그래.” → ×

“느낌상 이런 것 같아.” → ×

“왜 그렇게 생각해?”

→ “실험 결과가 그래.”

과학 논리는 관찰된 증거, 측정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되풀이 가능한 실험만을 논리로 삼는다.

�� 과학 논리의 한계

모든 것을 실험할 수는 없다. 실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침묵한다.

예:

사랑이 존재하냐?

정의란 무엇인가?

예술이 왜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 논리 바깥에 있다.

�� 정리: 과학 논리의 특징

|  |  |
| --- | --- |
| 항목 | 내용 |
| 기준 | 실험, 관찰, 측정, 데이터 |
| 구조 | 가설 – 실험 – 결과 – 검증 |
| 목적 | 객관적 설명, 일반화 |
| 강점 | 재현 가능성, 신뢰성, 검증력 |
| 약점 | 감정, 가치, 철학 문제는 다루기 어려움 |

�� 5장. 내가 보는 게 진짜일까?

– 인지 논리: 뇌의 해석 메커니즘과 오류들

“난 그렇게 봤는데?”

“그건 착각이야.”

논리는 논리인데… 왜 서로 다르게 보일까?

�� 인지 논리는 뇌의 자동 번역기

사람의 뇌는 들어온 정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본다 → 해석한다 → 판단한다 → 이 모든 걸 순식간에 해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왜곡이 생긴다.

�� 뇌는 항상 ‘추측’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 그 자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뇌는 매 순간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

�� 인지 오류의 대표 사례들

확증 편향

→ 믿고 싶은 정보만 눈에 들어옴

→ “봐, 내가 맞잖아!”

대표성 오류

→ 몇 가지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

→ “요즘 애들 다 그래”

후광 효과

→ 하나 잘하면 다 잘할 거라고 믿음

→ “그 사람은 말도 잘하니까 똑똑할 거야”

기저율 무시

→ 통계적 확률을 무시

→ “지인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실이야”

�� 왜 다르게 보이는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공감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한다.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문제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본다.

뇌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구성하고 재해석한다. 즉, 인지 자체가 하나의 논리 시스템이다.

�� 인지 논리는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심리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학습 구조도. 인지 논리의 모델링 위에서 작동한다.

“어떻게 하면 뇌의 오작동 없이 더 정확히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지 논리의 핵심 질문이다.

�� 정리: 인지 논리의 특징

|  |  |
| --- | --- |
| 항목 | 내용 |
| 기준 | 뇌의 해석 구조, 경험 기반 판단 |
| 구조 | 감각 입력 → 해석 → 판단 → 행동 |
| 목적 | 빠르고 적절한 반응 |
| 강점 | 실제 상황 대응력, 효율성 |
| 약점 | 오류 발생 가능, 사실 왜곡 |

�� 2권 6장. 철학 논리 – 생각의 틀을 의심하라

철학은 원래 질문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왜?" 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질문하는 방식 자체를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철학 논리는 단순한 주장이나 반박이 아니라 ‘사유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논리를 해체하고,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1. 철학 논리의 기본: "당연하다"를 깨뜨리는 질문

소크라테스의 반문법:

“정의란 무엇인가?”

→ 상대의 말을 파고들며 논리의 빈틈을 드러냄

칸트의 선험적 논리: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 경험 이전에 작동하는 인식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해부

데리다의 해체론:

“텍스트는 무엇을 숨기는가?”

→ 말과 개념의 모순을 드러내며 논리 자체를 문제시함

2. 철학 논리의 특징

|  |  |
| --- | --- |
| 특징 | 설명 |
| �� 자기 해석적 | 스스로의 논리 구조를 의심하고 해체함 |
| �� 순환 구조 허용 | 반복과 모순을 일부러 감싸 안으며 성찰 도구로 씀 |

�� 전제가 아니라 개념의 '틀'을 비틀기 전제를 깔기보다, '전제를 만든 틀'을 의심함

3. 철학 논리가 필요한 순간

✅ 말이 ‘딱딱 떨어지는데’ 어딘가 불편할 때

✅ 서로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실은 세계관이 다를 때

✅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가 섞여 있을 때

✅ “그래서 이게 옳다는 거야?” 라는 2차 질문이 튀어나올 때

4. 일상에 스며든 철학 논리

“너는 너고 나는 나야” → 개인주의? 존재론? 해체주의?

“모든 건 상대적이야” → 상대주의? 회의주의? 구조주의 반박?

이 말들은 모두 철학적 논리를 슬쩍 빌려 온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5. 철학 논리의 위험과 가능성

❗ 위험:

자칫하면 끝없는 말장난으로 빠질 수 있음 또는 “의심만 하다가 아무 말도 못 하게 됨”

�� 가능성:

그러나 이 논리는 기존 시스템의 이면을 들춰냄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6. 철학 논리의 툴킷

이 개념은 언제부터 당연해졌지?

그 말의 ‘의미’가 고정된 거라고 누가 정했지?

그 전제를 만든 사고 틀은 뭘 기반으로 하지?

이 주장은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나?

혹시 이 논리는 빠져나갈 구멍까지 계산된 구조인가?

철학 논리는 말싸움에 쓸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꺼내 보는 렌치입니다.

�� 2권 7장. 생태 논리 – 연결과 순환, 그리고 균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생태 논리에서는 그것이 전제이자 결론입니다.

생태 논리는 관계 중심의 논리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안에서 각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논리입니다.

1. 생태 논리의 출발점: “이건 혼자가 아니다”

나무 한 그루는 땅과 햇빛, 물, 바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 하나는 사회, 자연, 미래 세대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생태 논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는 사고에 반대합니다.

2. 생태 논리의 특징

|  |  |
| --- | --- |
| 특징 | 설명 |
| �� 순환적 사고 | 시작과 끝을 나누지 않고, 흐름과 변환을 봄 |
| �� 관계 중심 | 존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한 노드 |
| ⚖ 균형 지향 | 옳고 그름보다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 |

3. 생태 논리는 왜 논리인가?

논리란 판단의 근거입니다.

생태 논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생태 논리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좋은데?” 같은 단선적인 질문 대신

‘이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까?’로 질문을 바꿉니다.

4. 일상 속 생태 논리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 → 개인 선택? 사회 분위기? 생태 시스템?

야근을 많이 시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 사람만 문제일까, 구조 문제일까?

독한 약을 쓰면 몸이 더 빨리 낫는다 → 병만 보나, 몸 전체 리듬을 보나?

이런 질문들은 모두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생태 논리입니다.

5. 생태 논리의 툴킷

이 선택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단기 이익 말고, 장기적 흐름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이득이 나중에 어떤 대가로 돌아올까?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내가 안 보이는 존재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태 논리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묻습니다.

�� 2권 8장. 실존 논리 – 삶이 논리를 요구할 때

논리가 삶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실존 논리는 살기 위해 따져야 했던 것들, 버티기 위해 나만의 이유를 만들었던 순간들에서 탄생합니다.

1. 실존 논리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지?”

“이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까?”

이런 질문은 참·거짓이나 유·무를 따지는 기존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던지고 살아낸 사람들은 자기만의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존 논리입니다.

2. 실존 논리의 특징

|  |  |
| --- | --- |
| 특징 | 설명 |
| ‍♂ 1인칭 중심 | '나'의 경험과 감정, 고통이 논리의 출발점 |
| �� 개별화된 구조 |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칙은 통하지 않음 |
| �� 선택과 책임 | 논리는 곧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힘이 됨 |

3. 실존 논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누군가는 ‘그냥 견디자’는 논리를 가진다.

누군가는 ‘나라도 살아야지’를 붙들고 산다.

누군가는 ‘이 고통은 무언가를 위한 거야’라고 믿는다.

그 어떤 것도 논리학 책에 실리진 않지만 그 사람에겐 가장 강력한 논리 체계입니다.

4. 실존 논리는 왜 중요한가?

어떤 순간에는 과학도, 철학도, 수학도 아닌 삶 자체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실존 논리는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따집니다.

5. 실존 논리의 툴킷

지금 내가 버티는 이유는 뭔가?

이 선택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가?

남들 말고, 내 안의 ‘왜’를 들어봤는가?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은 뭔가?

논리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실존 논리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살아내온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 2권 9장. 이야기 논리 – 사람은 결국 서사로 산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때는 그게 내 이야기의 흐름이었으니까.“

사람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 혹은 서사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논리보다 먼저 이야기, 혹은 논리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 논리입니다.

1. 이야기 논리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선택이 자연스럽다.”

“이건 내 삶의 다음 장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던 결말을 위해, 지금 이걸 감당해야 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삶의 흐름에 부합하는 이유들. 그게 바로 이야기 논리입니다.

2. 이야기 논리의 구조

|  |  |
| --- | --- |
| 구성 요소 | 설명 |
| �� 맥락 | 이전 이야기들이 지금을 설명해줌 |
| �� 전개 |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선택이 일어남 |
| �� 결말 |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가 선택을 유도함 |

3. 이야기 논리는 왜 작동하는가?

인간은 서사적 존재입니다.

기억도, 감정도, 판단도 이야기의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논리보다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4. 이야기 논리의 특징

|  |  |
| --- | --- |
| 특징 | 설명 |
| �� 인과보다 의미 | ‘왜’보다는 ‘그래서’가 중심 |
| �� 서사 연결력 | 과거–현재–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음 |
| �� 감정 기반 |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납득이 우선됨 |

5. 이야기 논리의 툴킷

지금 내 선택은 내 이야기 속 어디쯤에 있는가?

이건 어떤 흐름의 일부인가?

이 선택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저자처럼, 나는 내 선택을 쓰고 있는가?

지금의 이 한 줄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읽히게 될까?

우리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줄 알지만 실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3부. 〈논리의 충돌과 응용 – 누가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 프롤로그.

논리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비춘다.

“너 논리가 안 맞잖아.”

이 말 그렇게 쉽게 던져도 되는 걸까?

논리는 언제나 정답을 향한 길처럼 보이지만 막상 따라가 보면 서로 다른 길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너는 ‘그게 상식이지’라고 말하고, 나는 ‘그건 말이 안 돼’라고 말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왜 따져?’라며 웃는다.

같은 현실, 다른 논리. 이게 가능할까?

아니,

그렇기에 인간이다. 논리는 단일하지 않다. 그 사람의 언어, 성장 배경, 감정 회로, 경험치, 그리고 때로는 그가 믿고 싶은 것까지 논리를 구성한다.

이제는 논리를 따지는 것보다 서로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다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논리의 지문을 읽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해결이 가능해진다.

논리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비춘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이 누구인지도 함께 비춘다.

1장. 논리의 충돌 – 같은 사건, 다른 논리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그건 당연하지!"

어떤 이는 "그게 왜 당연해?"

또 다른 이는 "당연한 건 없어."

논리적으로 따지면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1. 같은 사건, 다른 해석

예시: 누가 잘못했는가?

A는 "규칙을 어겼으니 B가 잘못했다." (수학 논리)

B는 "그 규칙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도덕 논리)

C는 "둘 다 감정이 상했는데, 잘잘못이 무슨 소용?" (심리 논리)

D는 "이 관계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지금 사과하는 쪽이 지는 거다." (관계 논리)

→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나온 논리.

→ 논리끼리 충돌하고 있음.

2. 이건 비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문화 차이

우리는 종종

"쟤는 논리가 없네."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다른 논리 체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  |  |  |
| --- | --- | --- |
| 사람 | 사용하는 논리 | 중심 가치 |
| A | 수학 논리 | 규칙, 일관성 |
| B | 변증 논리 | 정의, 현실성 |
| C | 심리 논리 | 감정, 납득 |
| D | 관계 논리 | 유지, 유연성 |

3. 그래서 뭐가 맞는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이해는 가능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어떤 논리 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

→ 이걸 읽을 수 있다면

→ ‘논리의 충돌’을 논쟁이 아닌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논리 충돌을 다루는 기술

1. 나의 논리는 어떤 종류인가?

(규칙형? 관계형? 감정형?)

2. 상대의 논리는 어떤 틀을 따르고 있는가?

(무시가 아니라 분석)

3. 논리 위에 서지 말고, 논리 사이에 서라

(조율과 번역)

논리가 충돌한다고 사람이 틀린 건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을 뿐이다.

�� 2장. 논리와 권력 – 논리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논리,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논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를 가진 자’의 언어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빠르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사람, 침착하게 논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논리의 승자가 됩니다.

1. 논리라는 이름의 갑옷

“그건 감정적이잖아.”

“팩트부터 봐.”

“네 말은 논리 비약이 있어.”

이 말들은 상대의 말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논리 그 자체보다 논리를 쓰는 방식이 권력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2. 권력은 논리를 만든다

역사를 보면 지배계층이 만든 논리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라 리더가 될 수 없다.”

“가난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다.”

“질문이 많으면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들.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 구조의 반영입니다.

3. 말빨 vs 논리 – 정말 같은 걸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는 이겼는데 사람이 졌다’고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정확히 한다고, 말을 날카롭게 한다고 논리의 승자인가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논리를 권력이 아닌 ‘연결’로 쓰기 위해

논리는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해를 연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의 논리가 ‘틀렸다’는 말은 나라는 사람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논리는 무기보다 다리처럼 써야 합니다.

논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선택하는 건 논리를 쓰는 우리의 태도다.

�� 3장. 논리와 감정 – 이성은 감정과 싸우는가, 손잡는가

“논리적으로 말해.”

“감정 섞지 말고 들어.”

“그건 그냥 네 감정일 뿐이야.”

논리와 감정은 서로 상극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논리는 이성의 영역, 감정은 비논리적인 것. 그런데…

1. 감정 없는 논리는 가능할까?

당신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억울해서. 정의롭지 않아서. 사랑해서. 상처받아서.

→ 논리의 출발점엔 언제나 감정이 있습니다.

2. 감정을 배제한 논리, 누구의 것인가?

수학적 계산처럼 보이는 말들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의’ ‘질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그 가치들은 전부 감정 기반입니다.

결국 논리는 감정에서 멀어지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 중 하나입니다.

3. 논리는 감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감정이 휘몰아칠 때 논리는 말을 정리해 줍니다.

상처가 깊을 때 논리는 이해의 틀을 만들어 줍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논리는 소통의 언어가 되어 줍니다.

→ 감정과 논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정을 억누르는 논리는 틀렸다

“울지 마, 그건 비논리적이야.”

“화내지 마, 이건 논리의 문제야.”

→ 이런 말은 논리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감정 없는 논리는 비인간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형식이고, 감정은 논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 4장. 논리의 피로 – 왜 말이 통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

“논리적으로 다 설명했는데, 왜 자꾸 감정으로 받아들여?”

논리는 말이지만 말한다고 다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1. 논리가 안 통하는 순간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 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설 때

논리의 배경 지식이 다를 때

논리 그 자체가 위협처럼 느껴질 때

→ 논리가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에서 논리로 들을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논리는 배터리다

논리를 구사하는 데는 에너지가 듭니다.

논리를 구성하는 집중력, , 상대 말을 듣고 분석하는 인내력, 차분히 설명하고 반복하는 체력

→ 논리는 생각의 체력 소모가 크고,

→ 그만큼 소통의 피로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논리적인 설명 대신 그냥 “몰라, 됐어”라고 말합니다.

3. 논리의 과잉도 문제다

논리를 너무 많이 쓰면 감정 소통이 단절됩니다.

상대의 아픔보다 말의 정확성에 집착하고, 감정을 경청하기보다 ‘틀린 논리’를 고치려고 듭니다.

→ 결국 대화는 “맞고 틀림”의 싸움이 되고,

→ 그 과정에서 사람은 빠져버립니다.

4.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논리가 지나쳐서일 수도 있다.

때로는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더 큰 이해로 이어집니다.

논리는 다리를 놓는 도구이지 벽을 세우는 무기가 아니다.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한다.

�� 5장. 논리의 희망 –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대화가 안 돼.”

“내가 뭘 잘못 말했지?”

“이제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이해시키려 합니다.

왜일까요?

1. 논리는 결국 ‘연결’을 위한 것

논리는 승부의 기술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논리는 나와 당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는 최선의 시도입니다.

2. 논리는 멈추지만, 사람은 계속된다

어떤 날은 말을 잃고, 어떤 대화는 끝이 나고, 어떤 논쟁은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말을 꺼내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그게 말이 되냐”고 묻게 됩니다.

→ 그것이 인간의 논리입니다.

3. 논리는 틀려도, 마음은 자랍니다

논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문장이 이상해도, 논리가 어설퍼도

→ 당신이 말하려는 마음이 그 자체로 귀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합니다.

잘 전해지지 않아도 꼭 전해야 할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4부: 논리의 장르들 – 생각의 방식이 다르면, 논리도 달라진다

�� 1장. 귀납과 연역 – 사고의 시작과 도달

1. 연역은 끝에서 시작한다

연역(deduction)은 원리 → 사례의 흐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처럼 연역은 전제가 맞다면 결론도 반드시 맞는 엄격한 논리 방식입니다.

→ 정확하고 깔끔하지만

→ 전제가 틀리면 모두 무너집니다.

2. 귀납은 밑에서 올라온다

귀납(induction)은 사례 → 원리의 흐름입니다.

“이 까마귀는 검다.”

“저 까마귀도 검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

→ 귀납은 구체적 경험들을 쌓아

→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완벽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음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3. 둘 다 중요하다

|  |  |  |
| --- | --- | --- |
| 구분 | 연역 | 귀납 |
| 방향 | 위에서 아래 | 아래에서 위 |
| 신뢰도 | 전제에 따라 100% | 확률적, 경험 기반 |
| 사용 예 | 수학 공식, 법 논리 | 과학 실험, 통계 |

연역은 정확성이 강점, 귀납은 현실성이 강점

→ 실제 사고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더 강력한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사고 방식이 논리를 만든다

연역형 인간은 원칙과 체계를 중시합니다.

→ “원래 그런 거야.”, “규칙이 그렇잖아.”

귀납형 인간은 사례와 현실을 중시합니다.

→ “보면 다 그래.”, “경험상 이게 맞아.”

→ 대화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논리 구조를 쓰기 때문입니다.

연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귀납은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시선.

세상을 잘 보려면 두 가지 시선을 오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 2장. 변증법 – A도 맞고, B도 맞을 때

1. 논리의 전쟁터, 그 한복판

논리는 보통 A냐, B냐를 따집니다.

맞다 vs 틀리다

옳다 vs 그르다

된다 vs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A도 맞고, B도 맞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2.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변증법(dialectic)은 대립을 통해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려는 논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식:

정(正): 기존 주장 (A)

반(反): 그에 대한 반박 (B)

합(合): 둘을 통합한 새로운 주장 (C)

예:

정 –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반 – 공동체의 안전이 우선이다

합 – 자유와 안전을 조화시키는 사회 규범

→ 변증법은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논리입니다.

3.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속에서 자란다

변증법은 논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진리를 키워갑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 ‘더 넓은 시야’가 열립니다. 즉, 변증법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이해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4. 어디에 쓰이나?

정치 담론: 보수 vs 진보 → 공존 방안

철학 이론: 칸트 → 헤겔 → 마르크스

교육 현장: 찬반 토론 → 통합적 결론 도출

갈등 해결: 입장 조율 → 공동의 해법 찾기

→ 특히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논리로서 오늘날 더 절실히 필요한 접근입니다.

5. 변증법적 사고란?

질문을 바꾼다: ‘누가 맞냐?’ → ‘둘 다 일리 있다면?’

관점을 늘린다: ‘흑백’ → ‘회색과 다채로운 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정 자체가 진리의 일부임을 인정

변증법은 논리의 결투장이 아니라 논리의 협주곡이다.

A와 B가 싸우는 동안 C는 조용히 자라고 있다.

�� 3장. 패러독스 – 논리가 논리를 깨뜨릴 때

1. 논리의 자가충돌

패러독스(paradox)는 논리적으로 옳은데, 결과는 모순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이 말이 참이면, 그는 거짓말 중이므로 거짓이 되고

→ 이 말이 거짓이면,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므로 참이 됩니다

이런 자기 참조(self-reference)의 꼬임은 논리 자체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2. 대표적인 패러독스들

러셀의 패러독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제논의 역설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 무한 분할의 개념이 만들어낸 시간 속 착시

크레타인의 역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 크레타인 에피메니데스의 발언

→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말은?

→ 이처럼 패러독스는 사고의 경계를 밀어붙이며, 논리의 사각을 드러냅니다.

3. 패러독스가 왜 중요한가

논리의 빈틈을 알려줌

→ 논리 체계가 무조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함

새로운 수학과 철학을 여는 열쇠

→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 등

생각을 리셋시킴

→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것을

→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듦

4. 패러독스는 오류가 아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논리 오류: 잘못된 추론, 착각

패러독스: 올바른 추론인데, 결과가 이상함

→ 패러독스는 논리의 ‘응급 상황’이자 ‘진화의 기회’입니다.

패러독스는 논리의 균열에서 피어나는 철학입니다. 그 틈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 4장. 수사학과 논리학 – 설득과 증명의 경계

1. 논리와 수사, 뭐가 다를까?

논리학:

→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도록

→ 사고를 구조화하는 학문

수사학(레토릭):

→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 표현을 조율하는 기술

둘은 닮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논리는 “참인가?”를 묻고 수사는 “설득되나?”를 묻습니다.

2. 논리적이면 다 통할까?

현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옳아도,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 “너는 이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본다.”

현실: “근데 기분 나빠서 싫어.”

→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므로 수사적 설득이 논리적 타당성보다 먼저 작동하기도 합니다.

3. 수사학의 기본 도구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설득 수단을 말했습니다:

로고스(logos) – 논리

파토스(pathos) – 감정

에토스(ethos) – 화자의 신뢰도

→ 이 중 로고스는 논리학이 다루는 영역이고

→ 파토스, 에토스는 수사학이 강화하는 영역입니다.

4. 왜 수사를 배우는가?

현실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 특히 말과 글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논리와 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 상대가 지금 “논증” 중인지 “설득” 중인지 파악 가능

수사를 감별하는 힘이 곧 비판적 사고력

→ 말이 멋있다고 속지 않는 능력

5. 합쳐야 강하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논리적이면서도 수사적으로도 매력적일 때입니다.

예: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논리 + 수사)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단 1000원이면 살릴 수 있어요.” (수사 + 감정 논리)

→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하는 논리가 되어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논리는 머리를 움직이는 힘, 수사는 가슴을 흔드는 기술. 둘이 함께할 때 세상은 움직입니다.

��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선구자들

1. 소피스트(Sophists) – 실전형 설득 전문가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도 알 수 없다. 알아도 전달할 수 없다.”

→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 설득에 매우 능했고

→ 아테네 정치와 재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함

2. 소크라테스 – 수사의 반대편에서 질문한 자

“참된 앎은 무지에서 시작된다.”

소피스트들의 수사적 궤변을 비판하며

→ 대화와 질문(문답법)으로 진리를 추구

3. 플라톤 – 수사학을 경계함

『고르기아스』에서 수사학을 \*\*‘영혼을 속이는 기술’\*\*이라 비판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위한 수사학의 가능성도 모색

4. 아리스토텔레스 – 수사학을 체계화한 철학자

『수사학(Rhetoric)』 저술

앞서 말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삼분법 제시

→ 지금까지도 수사학 교육의 기본 틀로 활용됨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사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힘과 위험성 모두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논쟁과 실험 속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논리로 움직이기 전에, 수사로 먼저 흔들리던 시대였죠.

지금도 어쩌면… 그때랑 비슷하죠?

�� 5장. 상징 논리 vs 자연 논리 – 논리의 형식은 몇 가지인가

1. 논리는 원래 기호였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논리는 수학처럼 생겼습니다.

P → Q

¬P ∨ Q

(∀x)(Fx → Gx)

이런 것들이 형식 논리(formal logic) 또는 상징 논리(symbolic logic)입니다.

→ 철저히 기호화되고 수학적 체계를 따릅니다.

장점:

명확하고 기계적, 오류 파악이 쉬움, 컴퓨터와 잘 맞음

단점:

인간의 사고와는 거리감, 감정, 뉘앙스, 맥락을 담기 어려움

2. 우리는 기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생각할 때는 기호보다는 이미지와 느낌, 연결이 앞섭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가."

"그런 말 하면 너도 상처 받는다?"

→ 이런 일상 속 사고는 형식 논리에 맞지 않지만,

충분히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자연 논리(natural logic) 또는 비형식 논리(informal logic)라고 부릅니다.

3. 자연 논리는 삶 속에 있다

자연 논리의 예:

은유적 사고: “그는 칼 같은 사람이다.”

상황 기반 추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화났네.”

공감 논리: “나라도 저랬겠다.”

경험 논리: “전에 그랬을 때 항상 실패했어.”

→ 틀에 박힌 증명이 아니라

→ 맥락과 정서 속에서 작동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4. 논리는 두 얼굴이다

|  |  |  |
| --- | --- | --- |
| 구분 | 상징 논리 | 자연 논리 |
| 기원 | 수학, 철학 | 언어, 일상 경험 |
| 표현 방식 | 기호, 수식 | 말, 은유, 이야기 |
| 장점 | 명료성, 정밀성 | 유연성, 현실 반영 |
| 단점 | 거리감, 비인간성 | 모호함, 논점 흐림 |
| 활용 분야 | 컴퓨터, 철학, 수학 | 대화, 교육, 상담 |

5. 진짜 논리는 둘 다 써야 한다

실제 사람 간 대화에서는 형식 논리의 엄밀함과 자연 논리의 맥락 감각이 함께 작동합니다.

문제 해결: 상징 논리

사람 설득: 자연 논리

감정 조율: 자연 논리

프로그램 설계: 상징 논리

→ 논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 우리는 더 풍부한 대화와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계는 상징 논리로 움직이고 인간은 자연 논리로 살아간다.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진짜 논리'인지도 모른다.

�� 6장. 실전 논리 장르들 – 토론, 논문, 판결문, 강연, 인터뷰

1. 논리는 포맷을 타고 움직인다

같은 생각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논리는 목적에 맞게 말의 ‘장르’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토론 –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의 논리

구조: 주장 → 반박 → 재반박

핵심: 빈틈을 찾는 논리력

주의: 이기려는 마음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음

�� 논리는 이길 수 있지만 진실은 질 수도 있다.

3. 논문 – ‘검증 가능한 사고’의 논리

구조: 문제 제기 → 방법 → 결과 → 해석

핵심: 재현 가능성, 객관성, 정확성

주의: 논리적으로 보여도, 삶과 단절될 수 있음

�� 논문은 진실보다 증거를 믿는다. 그게 학문의 원칙이다.

4. 판결문 – ‘법적 진실’을 구성하는 논리

구조: 사실 확인 → 법 적용 → 판단

핵심: 법리(법 논리)와 양형 사유

주의: 진실보다 증명된 사실을 우선함

�� 판사는 논리의 냉정함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5. 강연 – ‘전달’이 목적이 된 논리

구조: 주장 → 근거 → 예시 → 요약

핵심: 이해도, 설득력, 리듬감

주의: 감정의 동원은 진실을 가리거나 드러낸다

�� 강연은 ‘잘 들리는 말’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논리’가 더 쉽게 들리기도 한다.

6. 인터뷰 – ‘맥락적 사고’를 드러내는 논리

구조: 질문 → 응답 → 맥락 확장

핵심: 정리력, 자아성찰, 청자 인식

주의: 언어는 곧 인격이다

�� 인터뷰는 논리의 시험대이자,

말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다.

7. 그래서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에 맞는 논리의 장르를 선택하라.

|  |  |
| --- | --- |
| 목적 | 선택 장르 |
| 이기고 싶다 | 토론 |
| 검증 받고 싶다 | 논문 |
| 판단을 내려야 한다 | 판결문 |
| 전하고 싶다 | 강연 |
| 스스로 드러내고 싶다 | 인터뷰 |

논리는 목적 없는 도구가 아니다.

말하는 자의 의도와 입장이 그 논리를 만든다.

�� 포맷 (format): 겉모양, 틀, 형식

겉에서 보이는 구조나 배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예시:

|  |  |
| --- | --- |
| 상황 | 포맷 |
| 논문 | 서론–본론–결론 |
| 강연 | 도입–핵심–마무리 |
| 뉴스 | 5W1H 구조 |
| 유튜브 | 훅–전개–콜투액션 |

→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할지’를 말하는 것

�� 프레임 (frame): 관점, 해석의 틀

사고의 렌즈, 바라보는 방식

“이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예시:

|  |  |
| --- | --- |
| 상황 | 프레임 |
| 같은 사건 | ‘피해자 중심’ 프레임 vs ‘가해자 동기’ 프레임 |
| 같은 정책 | ‘복지’ 프레임 vs ‘세금 낭비’ 프레임 |
| 같은 데이터 | ‘위험’ 프레임 vs ‘기회’ 프레임 |

→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배제할지’를 결정

�� 한 줄 정리

포맷은 “어떻게 말할까?”

프레임은 “어떻게 바라볼까?”

✔ 유사한 점

|  |  |
| --- | --- |
| 구분 | 설명 |
| 포맷 = 객관 | 겉으로 드러난 구조, 누구나 볼 수 있음 |
| 프레임 = 주관 |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잡는 시선, 해석의 관점 |

→ 그래서 프레임이 바뀌면,

→ 같은 포맷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 다른 점

프레임은 은근히 조작 가능

어떤 뉴스든 프레임을 통해 감정을 유도할 수 있어요.

예: 같은 데이터를 “공포”로 프레임 씌우면 경계심 상승, “기회”로 보면 낙관.

포맷도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

어떤 말은 일부러 강연처럼 어떤 말은 일부러 토론처럼 만들죠.

→ 객관적 형식도 결국 의도적 선택일 수 있어요.

�� 결론

포맷 = 말의 그릇

프레임 = 말의 안경

→ 포맷은 ‘구조’, 프레임은 ‘시선’

→ 주관/객관보다 \*\*‘겉모양 vs 해석틀’\*\*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형식 논리(formal logic)는 포맷 중심이고 프레임은 형식 논리의 ‘바깥’에서 작동합니다.

�� 형식 논리는 포맷을 극한까지 정제한 논리다. 명제, 추론, 기호 등

내용은 비워두고 형식만으로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예)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내용과 무관하게 구조만으로 타당성 확보

→ 여기에선 프레임(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논리의 모양이 맞는가’만 따지니까요.

�� 반대로, 프레임은 형식 논리를 깨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무엇을 문제 삼을지, 어디에 시선을 둘지를 결정합니다.

형식이 아무리 맞아도, ‘그 논의 자체가 틀렸다’는 프레임이 작동하면 수용되지 않아요.

예)

‘모든 A는 B다. C는 A다. → C는 B다.’ 구조는 맞지만, C를 A라고 전제하는 프레임 자체가 거짓이면 무의미

‘여자는 감정적이다 → 감정은 비논리적 → 여자는 비논리적이다’ 구조는 형식적으로 맞아 보이나, 전제가 차별적 프레임에 기초

�� 한 줄 정리

형식 논리는 논리의 순수 포맷이다.

프레임은 그 포맷이 어떤 전제와 시선에 기반했는지를 묻는다.

�� 프레임 → 논리처럼 작동하는 이유

|  |  |
| --- | --- |
| 요소 | 설명 |
| 프레임 | 시선, 강조, 해석의 틀 (비논리적 출발) |
| 심리 논리 | 감정/경험 기반의 정합성 추구 (주관의 논리화) |
| 형식 논리 | 전제와 결론의 구조적 타당성 (객관의 논리화) |
|  |  |
|  |  |

→ 프레임은 처음엔 감정적이지만,

→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고 정당화되면서 내부 논리를 갖추게 됩니다.

�� 예시: 감정이 논리가 될 때

프레임: “그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전제를 갖고 세상을 보면,

“또 지 혼자 밥 먹었네.” → 이기적!

“같이 밥 먹자고 했네.” → 아마 속셈 있겠지.

→ 논리구조는 없음. 하지만 사람 뇌 안에서는 일관성 있게 작동.

→ → ‘프레임 기반 정합성’ = 심리 논리

�� 정리하면

프레임은 논리의 바깥에서 들어와, 논리처럼 뼈대를 만든다.

심리 논리는 그 뼈대를 ‘타당하다’고 믿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비논리가 논리로 느껴진다.

3장. 감정은 어떻게 논리가 되는가 – 프레임과 심리 논리의 결합

우리는 감정이 논리의 반대말인 줄 안다.

‘감정적이다’는 말은 ‘비논리적이다’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감정은 논리를 이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은 스스로 논리가 된다.

�� 프레임은 감정의 틀이다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때 해석의 렌즈가 바로 프레임이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이는 “나라 망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래야 바뀐다”고 말한다. 둘 다 감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의 ‘논리’가 된다. 자기 안에서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게 심리 논리다.

�� 심리 논리는 구조적이다

감정의 반응은 우발적이지만 감정이 만들어낸 신념 구조는 꽤 탄탄하다.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은 믿지 않아.”

“그건 다 정치적 의도야.”

“자기 이득 챙기려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은 그냥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패턴 인식과 인과 추론,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 판단까지 포함된다.

이건 형식 논리는 아니지만 정서 기반 정합성, 곧 심리 논리로 분류할 수 있다.

�� 문제는, 틀린 것을 맞다고 믿을 때다

형식 논리는 거짓 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레임은 거짓을 전제로 삼고도 내부 논리를 완성한다. 그렇게 틀린 전제 + 정합된 심리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리고 어떤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의 세계에선 논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중요한 질문

"이건 논리적인가?"

이 질문보다 먼저,

"이건 어떤 감정에서 나온 프레임인가?"

를 묻는 사람이 더 정확한 논리 판단자다.

4부 총괄 – 말, 설득, 그리고 경계 위의 논리들

4부는 논리의 본래 자리에서 시작해, 그 주변을 탐색하는 여정이었다.

여기서 다룬 논리들은 정통 논리학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논리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논리들이다.

�� 1장. 논리인가, 인식인가

논리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틀이다. 하지만 그 틀은 감각과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다.

논리는 객관을 말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주관이다. 즉, 논리는 완성된 구조이자 동시에 불완전한 해석이다.

�� 2장. 감정, 그 비논리적 논리

감정은 논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감정은 논리를 선택하게 만든다.

인간의 추론은 감정 없이 작동하지 않으며 감정은 논리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행동을 유도한다.

�� 3장. 패러독스 – 논리가 논리를 깨뜨릴 때

역설은 논리 체계가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생긴다. 패러독스는 논리의 오류가 아니라, 논리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역설은 논리의 실패가 아니라, 논리가 너무 정교해서 생기는 과잉현상이다.

�� 4장. 수사학과 논리학 – 설득과 증명의 경계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은 ‘설득’을 위한 기술이었고 논리학은 ‘증명’을 위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둘이 뒤섞여 있다.

논리처럼 말하면서, 설득을 노리는 화법이 넘쳐난다. 즉, 말의 시대에 논리는 증명이 아니라 정당화로 작동한다.

�� 5장. 상징 논리 vs 자연 논리 – 논리의 형식은 몇 가지인가

수학의 논리는 기호로 작동하고 일상의 논리는 감각과 문맥으로 작동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간다. 그리고 둘의 교차점에서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재구성된다.

�� 총평

4부는 논리의 핵심에서 시작해 논리를 벗어난 것 같지만 논리처럼 작동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이 여정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논리는 정말 ‘논리적’이기만 한가?

아니면, 논리는 우리가 만든 가장 교묘한 언어적 프레임인가?

5부는 이 질문을 더욱 정면으로 파고들 것이다.

프레임, 감정, 권위, 정체성, 윤리... 논리를 논리답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마주하러 간다.

5부.

1장. 논리를 만드는 것들 – 인간의 조건과 사고의 전제

논리는 언제나 ‘논리 이전’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이전’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조건과 한계로부터 시작된다.

�� 인간의 조건이 논리를 만든다

인간은 모든 걸 기억할 수 없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고, 반복되는 것을 규칙화한다.

논리는 이 규칙화의 구조다. 즉, 논리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다.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논리를 만들었다.”

→ 논리는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 불완전한 존재를 위한 안전장치다.

�� 사고의 전제는 논리 이전이다

논리에는 언제나 ‘전제’가 있다. 그 전제가 타당해야 결론도 타당하다.

하지만… 전제는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의 전제는 믿음, 경험, 문화, 언어에서 온다. 그러니까 논리는 그것들 위에 서 있다.

논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어떤 사고방식 위에 세워진 도구’일 뿐이다.

�� 그래서 논리는 중립이 아니다

논리는 때때로 가장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것을 포장한다. 왜냐면 전제가 왜곡되면 논리 구조는 멀쩡해 보여도 결론은 심하게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의 힘이 전제를 가린다.’

이것이 논리의 위험한 매력이다.

�� 논리는 인간의 거울이다

논리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생각의 지도’이자 우리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착각의 지도’다.

결국 논리를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2장. 감정은 왜 논리를 이기는가 – 본능, 신호, 그리고 결정

논리는 생각의 틀이다.

감정은 반응의 힘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반응이 먼저다.

�� 뇌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다

인간의 뇌는 감정 중추(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그다음 이성 중추(전두엽)이 해석하려 든다. 즉 ‘느끼고 나서 생각한다.’

→ 그래서 감정은 논리를 이긴다.

�� 감정은 '신호'로 작동한다

감정은 신체 반응이다.

두려움은 도망치라는 신호,

분노는 저항하라는 신호,

슬픔은 멈추라는 신호다.

이 신호는 빠르고 강하며,

논리가 도착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 감정은 결정을 던져놓고, 논리는 나중에 정당화한다

“왜 그렇게 했어?”

–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 “그 사람이 너무 화나게 해서…”

→ 행동은 감정으로,

→ 이유는 논리로.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감정이 일으키고, 논리가 정당화한다.

�� 그래서 감정은 논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논리적으로 피해 가고

내가 사랑하는 걸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분노한 걸 논리적으로 공격한다

이건 감정이 논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논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 감정 없는 논리는 비인간적이다

AI의 논리는 감정이 없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지만 그건 인간의 삶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논리보다 감정으로 사는 존재다.

→ 논리만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 감정 없는 논리는 윤리도 없고, 관계도 없다.

결론

감정은 논리보다 앞선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논리를 이긴다 해도,

그건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3장. 권위와 논리 – 누가 말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까?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이상한데 왜 어떤 말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까?

�� 논리에는 ‘화자’가 없다

논리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한다.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판단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권위는 신뢰다

부모의 말이라서 믿는다, 교수님 말이라서 옳다, 유명 유튜버가 말해서 따라 한다.

이건 내용의 논리보다 화자의 위치와 신뢰도가 판단을 이끈 것이다.

이 현상을

→ 권위의 논리 (argument from authority) 라 부른다.

�� 문제는, 권위가 논리를 대체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거야. 그냥 따라.”

“왜요?”

“말대답 하지 마.”

이건 논리의 중단이다. 권위가 ‘이유’를 막을 때, 사고는 멈춘다.

�� 그러나, 권위는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긴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만한 판단자를 설정한다.

“나는 의사 말을 믿어.”

“그 사람이 말하면 일단 들어봐.”

이건 정당한 신뢰의 위임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비판 불가능한 절대화로 흐를 때 발생한다.

�� 권위와 논리는 긴장관계다

논리는 이유와 증거를 따지고 권위는 사람과 위치를 따진다.

둘은 항상 충돌한다. 그리고 우리는 두 축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간다.

결론

논리의 세계에는 이름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엔 이름, 직책, 신뢰, 인기, 인지도가 논리보다 앞선다. 그러니 묻자.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가?”

이전에,

“왜 그 말을 믿고 싶은가?”

4장. 논리적 오류들 – 틀리진 않았지만, 맞지도 않은 말들

논리는 완벽한 도구 같지만 사람이 쓰는 한 언제나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논리적 오류(fallacy)다.

�� 오류는 말의 틈에서 생긴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이상하고 구조는 멀쩡한데 결론이 어긋난다.

“논리적 구조는 있어. 그런데 설득이 안 돼.”

→ 이건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 대표적 오류들

허수아비 공격 (Straw Man)

→ 상대의 말을 극단적으로 바꿔놓고 반박

예: “우린 환경 보호가 필요해요.”

→ “그럼 아예 산업 다 멈추자는 거예요?”

인신 공격 (Ad Hominem)

→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한 사람을 공격

“쟤가 무슨 말을 해도 원래 이상하잖아.”

선택 강요 (False Dilemma)

→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원인 오판 (Post hoc)

→ 앞선 사건이 뒤의 원인이라 착각

“운동했더니 시험 망쳤어.”

권위에 호소 (Appeal to Authority)

→ 검증 없는 인물에 기대 설득

“유명한 박사도 그렇게 말했어.”

군중에 호소 (Bandwagon)

→ 다수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요즘 다 이 앱 써. 너도 깔아야지.”

무지에 호소 (Appeal to Ignorance)

→ 증명 안 된 걸 이유로 삼기

“그게 틀렸다는 증거도 없잖아.”

�� 오류는 왜 반복되는가?

사람은 설득당하길 원하지, 검토하길 원하진 않는다. 말이 그럴듯하면 그냥 믿고 넘어간다. 구조보다 감정, 리듬, 흐름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라는 말을 들을 땐 의심해봐야 한다.

�� 논리란 오류를 피하려는 훈련이다

완벽한 논리는 없다. 그러나 오류를 피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다.

“왜 이 말이 이상하지?”

→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 논리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결론

논리적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구조적인 착각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말의 기술보다 말 속의 틈을 읽는 능력이 먼저다.

5장. 논리의 경계 – 틀리지 않았지만 옳지도 않은 세계

논리라는 도구는 참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항상 ‘진실’을 향하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았어.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옳은 걸까?”

�� 논리의 힘과 한계

논리는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구조다. 하지만 ‘타당’하다고 ‘진실’인 건 아니다.

예: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건 옳고 아름다운 논리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 지금 고통받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이 말도 논리적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는다.

�� 논리는 감정과 윤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논리는 “그건 네 탓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일지 모르지만, 옳지는 않을 수 있다

�� 그래서, 논리는 어디까지인가?

논리는 판단의 틀이고 사고의 훈련이며 말의 뼈대다. 그러나 마음의 언어는 아니다.

�� 틀린 말은 없어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은 있다

논리적이지만 잔인한 말.

비논리적이지만 따뜻한 말.

사람은 그 둘 사이에서 매번 고민하고, 선택한다.

결론

논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논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목적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